

년 월 일

5월 12일 안영민

웃들어 점점 날카로움이 없게는것 같다. 물론 각상연서 좋은말일지은 웃지만 7시에 눈이 떠져 지각일
 되고 점심도 씻고 고별까지 갈아보고 난 뒤의 정은 쉽게 돌아버리 않았다. 아침부터 시끄럽기 한덕에 잘 자고계던
 영미도 깨서고... '영미 아침부터 시끄럽게해봐 귀찮아'

하지만 아침부터 공학이란 소리는 별로 듣지않았어. 아침 먹을때 정도는 특이 대신에 다른걸 봐도 되지 않나?
 영미 잔리를 듣고 승룡을 불러다가 그냥 일분초까지 찬을 봤다. 내가 일분초에 관심을 보이는걸 싫어하는 공미라
 조금 걱정은 하지만 대항히 별말은 없었어

영미의쪽 이야기는 이젠 비슷하게 어렸을 적에그사이드엔 영미사랑은 날이 너무 재미있었다. 상상만 아니라면 왜카에게
 수동해 보였다. 못났음은 알았지만 이정도 돼야. 쿨카도. 정말 사잔쪽으러면 여가 딱일것같아. 별말 끼임 이야기
 전에 일분초에서 어떤 아구미나가 아이를 영미에게 기웃하다가 아이가 클어주었다는 말을들었는데. 가끔보면 영미의
 이런 잡화아리화가 정황이 조금 무뎠것같기도하다. 하키야 그러기에 영미가 너무 강대독이다든 강대독인게까지.

결국 영미가 밤늦게 만든다고 한소리한다. 물론 좀 천천히 먹긴했지만. 원래 밥이다든 천천히 먹어야 몸에 좋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렇게 대충 대충 먹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별로 집중은 되지 않았지만 이베에나 아이네
 들다가 한국자리를 켜서 이방송 썸다 함께하였다. 그렇게 두시간이지났고. 지겨운 마음에 잠깐 인터넷 서핑을 했다.
 인터넷을 보면 세상은 참 재밌는것 같다. 영미의 한강이타고 물에 탕을 설치하여 영미에게 장난을 치는 영미생이
 너무 귀여운 귀여워 보였다. 또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천이 나왔는데 음. 가인머리를 보냈어라고 하던가?
 순간 가인의 머리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내 머라도 저를 대가 돼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신발은 안감에 바타고
 영미살 곁을 앉아서 미발발을 향했다. 하지만 머리를 저를 곁과 난 콧눈이 튀었고. 대학하는 건머리도 다고 싶었던
 것이 기억났다. 내머리를 붙여보는 처음에는 잘 어울린다 하든. 가인머리인걸 아는 순간 아득땀 흘리
 썸고 영미는, 그냥 웃었다. 그렇게 안어울리나. 아젠 정말 머리를 영미의 곁에야될것같다